

부활 제 4 주일(성소주일)
제 1 독서 : 사도 13, 14. 43-52
제 2 독서 : 묵시 7, 9. 14b-17
복 음 : 요한 10, 27-30

순정이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요한 10, 27b)

강론

성소(聖召)는 인성교육에 비례

양경배 신부/성소국장

아버지를 살해하고 위장한 박한상이라는 20대 젊은이, 아버지를 살해하고도 영전에서 흐느끼는 김성복이라는 40대 교수. 우리의 가슴을 서늘케하는 비극적 사건이 너무도 자주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인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제 자신에게 자문해보며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해답은 가정 안에서의 참다운 인성교육만이 그 해결책이요, 우리의 현실을 밝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의 인성교육은 그 목표와 방법이 잘못된 것이 만연되어 있다고 봅니다. 즉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접할 때는 지극히 물질적이고 권위적인 것을 취할 때 그것을 출세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에서는 인륜과 정석이 아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상식처럼 통하는 사고방식의 팽배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가정의 인성교육에서 그 목표와 방법을 제대로 수정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교회가 공동으로 사제성소와 수도성소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문제 역시 가정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양호해질 때 젊은이들의 참된 삶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지고 그 열정도 비례한다고 확신합니다. 올바른 인성교육이 있는 곳에 활발한 성소계발도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사제양성의 첫 문제로 가정 안에서의 인성교육을 강조하시면서 “인성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제양성은 밑빠진 독과 같다”고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현대의 사제양성, P.111 참조)

사제성소와 수도성소는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키워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욕망과 충족을 위해 자신들의 뜻과 관계없이 대학과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요즘의 세태를 비유하여 어느 방송사는 ‘부모대신 공부하는 입시생’이라는 웃지 못할 프로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제성소와 수도성소의 계발은 올바른 삶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부모님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인성교육과 성소계발은 한 몸입니다.

소리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기어코 큰 일이 터지고 말았다. 지난 달 29일, 대구에서 일어난 가스폭발 사고는 한마디로 평소의 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가져다 주는 가를 말해 주는 것이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위도의 페리호 침몰, 부산 구포의 열차 전복, 목포의 항공기 추락, 충주의 유람선 화재,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 폭발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때마다 조야(朝野)가 온통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고 법석을 떨어냈던 기억이 새롭기만 하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도 정도 나름이다. ‘우째 이런 일이...’라는 자조섞인 말들도 오고 간다.

졸지에 유명을 달리한 연령들에게 명복을 빌뿐이다.

특히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숨겨간 어린 학생들의 영혼에게는 더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사회의 기강해이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는 시점이다.

결국은 아무리 큰 사고도 아주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됨을 간과한 것이 이같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개혁이다, 세계화다 하고 외치기 전에 미개하고 원시적인 사고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우리의 처지를 한탄해야 할 지경이다. 

순정이 산책



특 집 - 성소주일을 맞이하여



신학교에서 온 편지

김호철(치킬로) / 광주 가톨릭 대학교 1학년

성소의 시작, 그것이 언제부터였는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성소를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랬으리라 생각된다.

내가 처음 '신부가 되어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은 국민학교 5학년 때의 일이다. 그러다가 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본당 신부님께서는 나에게 관한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나에게 예비 신학생 모임에 나가보라고 권하셨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 예비 신학생 모임에 나간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어린 나에게 예비 신학생 모임을 나가기에는 대단한 각오를 필요로 했었다. 처음 예비 신학생 모임에 나갈 때부터 확실한 성소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심의 정도에서 시작된 성소가 예비 신학생 모임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고한 성소관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비 신학생 모임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까지는 특별히 얻은 것은 없었던 것 같다. 신학교에 와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한 달에 한 번 예비 신학생 모임에서부터 나의 성소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음을 깨달았다.

돌이켜보면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내 인생의 진로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목적의식을 갖고 내 성소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았다. 그전까지는 선배들의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까마득한 먼 훗날의 일이



라고 막연한 동경심으로만 키웠던 것이다. 그러나 한 학년씩 올라갈수록 더이상 신학교에 가는 선배들이 동경의 대상으로만 다가오지 않고, 이제 몇 년 후면 나도 신학교에 가게 되는구나 하는 현실적 문제로 다가왔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나의 장래는 꼭 사제가 되어야만 하는 양, 신학교에 가는 일만 생각했지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오직 신학교만이 내가 갈 곳이라고 생각했다. 아주 당연시했던 것이다. 내가 스스로 깨닫기도 전에 하느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확신이 순탄히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다행히 집안에서는 나의 결정, 아니 하느님의 응답에 반대가 없었지만 학교에서 공부에 쫓기고, 커가면서 세상에 대해 조금씩 눈을 떠가면서 성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서는 무기력해져서 결국 그분의 품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어렸을 적에 성소를 갖게 되어 때론 성소에 대한 회의도 있었지만 예비 신학생 모임을 통해 성소를 잃지 않고, 지금까지 확고한 신념으로 성소를 키워서 이렇게 신학교에 올 수 있었다.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신학교에 오게 되니 글썽 뭐랄까, 성취감이랄까, 그 어떤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실망감도 없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동경심이 지나쳐서였을까. 결국엔 이곳도 사람사는 곳이거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정말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한 형제애에 너무도 고마웠고, 내가 정말 좋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신학교 생활 특성상 하느님과 대화할 기회가 많고 그러면서 나의 신앙도 성숙해지고, 성소에 대한 확신도 뚜렷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도 나의 꿈인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성소를 키워온 기간을 신학교에서 수련을 해야 한다. 좀더 열심히 나의 계발을 통해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린버티컬
 커넨, 버티컬, 블라인드
 롤스크린, 슬라이딩(칸막이)
 장삼수(바오로)
 이양님(루시아)
 영등동 성당 ↔ 동부시장 사이
 ☎ (0653) 52-0018

(유)우도건설
 은실철치공사업(유리,PC,비닐자동차),
 지은지장고,축사,집하장
 소근호(스테파노)
 ☎(0652)243-6866,241-2546
 호출기 012-681-0377
 휴대폰 011-671-0377

동산동 아남제일대리점
 T.V·전축·V.T.R
 김남태(바오로)
 김윤태(돈보스코)
 이리시 동산동 동양호텔 옆
 ☎(0653)842-2604~5,54-9504
 아남서비스 834-2628

영창피아노 전주중앙대리점
 · 36개월 할부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 A/S 전문점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다기동 파출소 옆
 ☎84-6085, 223-5823

잡간

주님의 은총의 해

2. 서기 2000년-대희년(大禧年)은 왜 중요한가?

예수께서 선포한 희년(루가 4, 16-21)

예수께서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 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이사야 61, 1-2)의 예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루가 4, 21)고 하시므로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셨다.

주님의 은총의 해는 가난한 이들에게 해방이 이루어지는 해이다. 예수께서는 당시 부자와 빈자, 이웃과 이방인, 의인과 죄인 사이에 사회적 구별과 차별이 엄격히 이루어지던 사회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죄진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며, 구체적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들의 운명에 함께 참여하셨다. 이것은 희년의 본질이 시간 속에서 어떤 기념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줌으로써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는 메시아적 사명의 완수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2000년 대희년의 중요성

그리스도교 안에서 '시간'은 근본적인 의미를 가진다. '시간' 안에서 세상이 창조되었으며, 영원한 하느님께서 강생을 통하여 역사와 시간 속에 들어오심으로 시간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종말론적인 하느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지막 시간'(요한 2, 18)이다. 이처럼 시간의 완성이란 오직 영원 속에, 즉 하느님 자신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며, 시간은 하느님 존재의 한 차원이 된다. 또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그리고 '교회의 때'가 시작된다. 이런 이유로 시간은 그저 객관적 시간이 아니고 실존적 시간인 구원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5년이 지나면 그리스도 강생 2000년이 된다. 새로운 10년대나, 100년대가 아닌 새로운 천 년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천 년이란 숫자는 대단히 상징적인 숫자로, 새로운 하늘과 땅이 마련되기 바로 이전의 천 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모든 악의 세력들을 정복하고 그 동안 그분을 위하여 증언을 하고 순교한 신자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묵시 20장 참조). 이런 의미에서 2000년의 대희년은 특정 의미에서 여느 다른 희년과 같은 동시에, 다른 희년보다 더욱 크다. 금세기 후반부에 기념된 성년들(Holy Years)-1975년 성년, 1983년 구속의 해, 1986~87년의 마리아의 해-도 2000년을 준비한 것이다.

그러나 제1의 1000년대의 말기에 일어났던 식으로, 지복천년설(millenarianism)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겠다. 종말의 열매는 사이버 광신도들의 몫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충실한 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한국사목연구소 제공

교구 소식

- ※ 치명자산 성당 봉헌 1주년 기념미사 : 5월9일(화) 오전5시30분, 주례-이병호 주교
- 1. 축! 견진 : 5월13일(토) 오후4시 동산동 성당, 5월14일(일) 오전10시30분 영등동 성당
- 2. 천호 피정 안내 : 5월9일(화) 성령 안에서의 생활, 강사-김용태 신부, 문의 73-6600
- 3. 교구장 사목방문 : 5월9일(화) 나운동, 대야 성당, 5월12일(금) 나바위, 용안 성당
- 4. 관구 성직자 체육대회 : 5월10일(수) 광주 가톨릭대학교
- 5. 예비 신학생 모임 : 5월14일(일) 오후1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6. 여성 49차 꾸르실료 : 5월10일~14일 천호 피정의 집
- 7. 성직자 묘지 미사 : 5월13일(토) 오전10시30분 치명자산 성직자 묘지
- ※ 축! 영명 : 14일(성마티아) 범석규, 이성우 신부님

요심이 (1031) 김병오



감사드립니다

이금용(다두)의 영혼에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해주신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모든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주 이승환, 이상설 신부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동정성모회 성소피정

주제: "씨앗 하나 심으셨네" · 일시: 5월 20일~21일 오후 5시 · 장소: 서울수련원 메리워드교육관 · 준비물: 미사, 필기, 세면도구 · 참가비: 10,000원 · 신청문의: 서울 (02)685-7222/8525 대전 (042)254-6530/6531 · 신청마감: 5월13일(토)까지

부산성베네딕도 수녀원

성소 피정

주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요한 14, 23) · 일시: 5월20일~21일 오후 5시 · 장소: 부산성베네딕도 수녀원 · 신청: 5월14일까지 · ☎ (051) 753-1131~4

최첨단 부엌가구 ENEX 전북종합전시장

박영근(공사가) 장정신(젼마) 전주시 덕진구청 앞 ☎ 75-0523~4 FAX (0652)75-0524

쌍방울 효자 전문점

이오환(요한) 양진희(아나다시아) 효자 테니스 앞 ☎ 222-1723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 (유리안부) 미용실·미용학원 학생수시모집 속성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 제 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부활 제4주일
- ◎ 성소주일: 2차헌금 있음
- 1. 5월은 성모성월: 평일미사 후 십자가 동산에서 기도있음.
- 2. 첫영성체 교리: 5월9일~6월12일까지(화, 수, 목, 금) 후 4시30분
첫영성체 어머니 모임: 9일 후 4시
첫영성체: 6월18일
- 3. 병자 봉성체: 12일 오전중, 사무실에 신청
- 4. 가정방문 안내: 11일-중노 11반, 12일-중노 12반.
- 5. 비품미련 특별헌금 신입액: 소계-49만원, 누계-1,850만원.
봉헌액: 한기성-30만원, 양인석, 양성래, 조병금, 조경익, 장은주-각 5만원, 서세원, 김영춘, 장행열, 익명-각 10만원, 윤광섭-15만원, 익명-1만원, 안판순, 고경애-각 2만원, 정해숙-3만원, 한진양-7만원, 소계-125만원, 누계-1,314만원
- 6. 모임: ①올드레아(오늘, 장엄미사 후)
②부녀회(10일, 어머니미사 후)
③세실리아회(12일, 저녁미사 후)
④장우회(14일, 장엄미사 후)
- 7. 사순절 폐지저금통 성미주머니 사무실에 내주세요.
- 8. 금주 청소: 중노 13, 15반
차주 청소: 중노 16, 17반
- 지난주 봉헌금: 1,058,220원 □ 봉헌금: 1,655,000원
□ 2차헌금: 369,42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영

- 1. 오늘은 성소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 2. 첫영성체 교리: 6월~18일(국민학교 3학년 이상)
- 3. 예비신자 인도 기간: 5월1일~18일(한 가정에 한 분씩 인도함시)
- 4. 호도관광: 9일(화) 장소-수안보 온천, 단양 팔경. 출발-성당에서 7시반, 선착순 접수 좌석 배정, 대상-60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
- 5. 모임 안내: 성우회, 대건회-오늘 공식미사 후
사목회-오늘 저녁미사 후
구역분과회-9일(화) 오전 10시
자모회-11일(목) 오전 10시
여성분과회-13일(토) 오전 10시
요셉회-14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꾸리아-14일(다음주일) 오후 2시
청년회-14일(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 6. 미사시간 변경: 오늘(7일)부터 모든 저녁미사가 7시 반으로 30분 늦춰집니다. 7. 교무금 납부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성당 청소: 5월 13일(토) 황금궁전Pr, 성모성녀Pr.
금주 전례: 해설-허정식, 독서-강영진 부부
봉헌-안철조 가족
차주 전례: 해설-조옥래, 독서-강주호 부부
봉헌-육정수 가족
- 주일헌금: 602,100원 □ 교무금: 761,800원
□ 감사헌금: 60,000원

*** 상관** 사 제 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5월은 성모 성월: 성모님의 믿음과 겸손과 사랑을 본받읍시다.
- ◎ 오늘은 성소주일: 기도과 2차헌금 있습니다.
- ◎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 1. 모임: ①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 꾸리아-공식미사 후
②안나회-다음주일
- 2. 사순절 불우이웃돕기 폐지저금통 봉헌합니다.
- 3. 사제양성 후원회비 정성껏 납부하십시오(세대별 매월 1천원 이상)
- 4. 축! 혼인: 신랑-홍영훈(베드로) 신부-최인이(막달레나)
14일(일) 오후 12시30분(최상옥 예명회장 2녀)
- 5. 지속적인 성체조배 교육: 오늘 미사중, 회장 채수현 형제
- 6. 성당 청소: ①금주-평화의 모후Pr
②차주-바다의 별Pr.
- 7. 금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남현준 ②송정자
봉헌-이기봉(강논나) 가정
차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이옥동 ②이춘봉
봉헌-강덕용 가정
- 지난주 봉헌금: 412,500원 □ 교무금: 124,000원

*** 서학동** 사 제 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2차헌금 있습니다.
- 1. 금주 모임 안내: 사목회-5월9일(화) 후 8시, 장소-회합실
꾸리아-오늘 오후 2시, 장소-강당
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장소-회합실
올드레아-5월11일(목) 후 7:30분, 장소-회합실
성심회-5월10일(수) 전 10:30분, 장소-회합실
- 2. 차주 모임 안내: 프란티스코 삼회-다음주 일요일 후 2시, 장소-강당
- 3. 성도의 밤: 5월20일(토) 후 7시, 많은 참석바랍니다.
- 4. 모이세 수녀님 피정: 많은 신자들의 기도를 바랍니다.
- 5. 축! 결혼: 신랑-장길만(비오) 신부-김희라(엘리아)
일시-5월 14일
- 6. 청소 안내: 금주-사랑하움 어머니
차주-사랑의 샘
- 7. 성전일자 성금내신 분: 김봉환(안드레아) 50,000, 정재준(파스칼) 50,000, 김인수(그레고리오) 250,000, 오효지(요세피나) 300,000, 계-650,000.
- 지난주 봉헌금: 1,314,450원 □ 교무금: 1,116,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 부활 제4주일
- 1. 금주: ①성소후원 회비 납부주일
②계속골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③요셉회(후 6시)
④올드레아(후 8시)
- 2. 빼앗다회: 10일(전 10시)
- 3. 에루살렘회: 10일(전 11시)
- 4. 유아 세례: 13일(후 3시)
- 5. 차주: ①사목회(후 8시)
②자모회(전 10시)
③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④예비자 교리 개강(공식미사 후)
- 예비자 교리 안내: ①화요일(후 8시)-대학생, 청년반
②수요일(전 10시)-노인반
③목요일(후 8시)-직장인, 성인반
④토요일(후 4시)-중·고생반
⑤일요일(전 9시)-일반인, 남녀
- 지난주 봉헌금: 2,069,350원

*** 평화동** 사 제 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김삼근

- ◎ "나는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으니 너는 땅끝까지 구원의 등불이 되어라"(사도 13,47) 오늘은 성소주일-매 미사 후 2차헌금
- 1. 사목회 상임위원회: 9일 저녁 8시
- 2. 호도관광: 9일 8시30분 출발, 61세 이상, 지리산 뱀사골 집합은 각자 준비하세요(오늘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람)
- 3. 여성 제49차 꾸르실로 강습회: 11일~14일 천호, 한해자(무시아), 김문선(크리스티나) 권 실비아 수녀, 많은 기도바랍니다.
- 4. 어린이 첫영성체 반모집: 국교 3학년 이상, 부모가 교우이면서 세례받지 않은 자녀 포함
- 5. 첫영성체 대상 자모모임: 10일 어머니미사 후
- 6. 반미사: 오전 10:30, 저녁 8시, 11일 전 9-2, 저녁 7-5, 12일 저녁 7-6, 13일 전 7-2
- 7. 회의: ①꾸리아-오늘 후 2:30 ②성지회-오늘 공식미사 후
③빈첸시오회-10일 어머니미사 후 ④제대회-12일 후 3시 ⑤성체회-14일 공식미사 후
- 8. 쉼개떡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9. 축! 혼인: 14일 12시 동원캐딩타운, 신랑-최광규(분도) 신부-문정숙, 최덕남씨 3남, 문제원씨 4녀.
- 지난주 봉헌금: 1,445,690원 □ 교무금: 1,723,000원